

2024년도 감사한 일 9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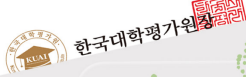
대학기관평가 인증

인증서

대학명: 한국성서대학교
인증유형: 인 중
인증기간: 2024. 1. 1 - 2028. 12. 31(5년)

위 대학은 고등교육법(제11조의2)에 근거하여
교육부가 인정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대학
평가원의 인증기준을 충족하였기에 본 인증서를
수여합니다.

2023년 12월 27일



한국대학평가원

신입생 충원율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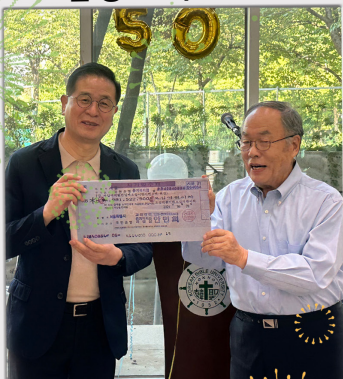
[2월 29일]

최정권 목사 제8대 총장 취임



[3월 1일]

포천 땅 50억에 매각



[3월 22일]

시용합학부 인가

AI
융합학부
신설 확정

55명

|신설 전공|
인공지능
AI휴먼서비스융합
컴퓨터소프트웨어

[4월 16일]

캠퍼스 전도 새신자 66명(교목실)



[5월 22일]

개인정보보호수준 진단



[9월 5일]

간호교육인증평가 '5년 인증'



[12월 16일]

▲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 은혜였소” _ 2024년 한 해도 은혜와 감사의 연속이었다. 코코스 편집진은 2024년에 하나님께서 우리 대학에 베푸신 축복의 사건 9가지를 뽑아 시간대 별로 정리하였다. [관련 기사 4면]



신년사 최정권 총장



사랑하는 성서인 여러분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 날이 왔다고 어제의 아픔과 불안이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나라를 덮고 있는 정치적 불안감과 가족을 잃고 통곡하는 무안의 아픔이 새벽 햇살에 어둠이 물러가듯이 생명의 빛으로 오신 주님의 은혜로 치유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오늘의 대학은 과거의 대학이 해 오던 연구와 단순한 강의만으로서 그 존재감을 유지할 수 없는 위치에 서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 온 혁신 사업과 함께 대학에 들어 온 라이즈(RISE) 사업까지 감당해야 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높아지는 물가와 대학 등록금 동결 16년의 모순된 구조 속에서 지금의 대학은 도시 인구의 소멸을 막아내고 지역 사회 문제까지 풀 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대학은 이러한 요구를 눈에 보이는 결과와 수치로 나타내 줘야 합니다. 여러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 대학이 견디고 이겨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은 위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이며 공동체 내에서 자신의 업무 이상으로 수고해 주신 성서인 모두의 사랑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수고와 사랑에 감사를 드리며 늘 변함없이 물질과 기도로 학교를 섬겨주신 동문과 후원자 여러분께도 머리 숙여 고마운 마음을 담아 보내 드립니다.

우리 대학은 올해도 변함없이 전진할 것입니다. 대학의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대외협력팀 보완, 지역 사회와의 동반을 위한 평생 교육 강화, 그리고 우리의 밀알 정신의 국제화를 위한 국제교류원과 한국어교육센터 확장에 노력해 갈 것입니다. 또한 인공지능에 기반

한 미래의 우리 대학을 바라보고 미래 세대가 필요한 섬김과 화합형 인재 배출을 위한 이공계의 기초를 높을 겁니다.

우리 대학은 사람이 세운 대학이 아닙니다. 각 분야에 복음 전도자를 보내기를 원하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의 피로 사신 젊은 인재들을 복음으로 키우는 학교를 원하셔서 강태국이라는 한 소년의 가슴에 심으신 꿈을 이루어가는 대학입니다. 우리 대학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신·구약 성경을 교과서로 삼는 영적 양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각 학과 강의실에서 우수한 전문인들에게 지식의 양식과 사랑으로 어린 생명을 키우는 교육자, 아픈 이들의 육체와 마음을 만져주는 간호사, 눈에 보이지 않는 AI 가상 세계를 복음으로 주도할 프로그래머, 한국과 열방의 교회를 섬길 복음 전도자, 약하고 소외된 곳의 친구가 될 사회복지인을 보낼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대학이 존재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우리에게 보내 주신 학생들을 사랑하며 그들의 성장을 힘껏 도와 줄 것입니다.

총장인 저는 고귀한 정체성과 변화와 개혁의 단어를 마음에 새기고 성서 공동체와 함께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복되게 하실 겁니다. 여기에 우리 모두의 자신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가정 위에 넘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간호교육인증평가 5년 인증 획득

3회 연속 (2015, 2020, 2025)
우수 간호교육기관 입지 확고

한국성서대학교 간호학과(학과장 안현미)가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이 주관한 '2024년 하반기 간호교육인증평가'에서 간호학 학사학위 프로그램 '5년 인증'을 획득했다.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은 12월 16일 이와 같은 내용의 평가 결과 보고서를 보내왔으며 인증 기간은 오는 2025년 6월 11일부터 2030년 6월 10일까지다.

안현미 학과장은 "하나님께 이 영광을 올리며 인증 과정에서 밤낮없이 함께 수고해 준 동료 교수와 재학생 그리고 기도로 후원해 준 성서공동체 모두에게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우리 대학 간호학과는 2024년 4주기 인증까지 3회 연속 (2015, 2020, 2025) '5년 인증'을 획득, 우수 간호교육기관으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했다.

간호교육인증평가는 간호교육의 질적 발전과 향상을 도모하고 성과 기반의 교육 체계 속에 졸업생이 사회에서 요구하는 성숙한 간호역량을 갖추도록 지원 및 관리하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간호 교육 성과와 교육과정 운영, 교육 여건 등이 국가, 사회, 간호 전문직의 요구 수준에 부합하는지 평가 및 인증을 하게 된다.

2023년 졸업자 취업률 67.4%

전년도 72.2% 대비 4.8% 떨어져
취업률 순위도
전국 61위(전년도 31위)로 하락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12월 26일 『2023 대학졸업자 취업 통계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는 2023년 2월과 2022년 8월 졸업자를 대상으로 2023년 12월 31일 기준 취업자 통계이다.

이 기간 우리 대학의 졸업자는 213명인데 그 중 126명, 67.4%가 취업하였으며 전년도 72.2%에 비해 4.8% 낮아졌다. 전국 184개 일반대학 취업률은 64.6%(22년 66.3%)로 전년 대비 1.7% 감소하였으며 수도권 70개 일반대학 취업률은 67.6%(22년 69.5%)로 1.9% 하락하였다.

취업률 순위는 전국 일반대학 중 61위(22년 31위, 21년 6위)이며, 수도권 일반대학 중 29위 (22년 15위, 21년 2위)에 머물렀다. 이번 취업률은 지난 5년 사이 (2019년-2023년) 가장 저조한 기록이다. (도표 - 『5개년도 학과별 취업률 현황』 참조)

학과별로는 성서학과 졸업자 45명 중 9명이 취업, 취업률은 33.3%이다. (*취업률 산식 참조) 사회복지학과는 54명 중 35명 취업, 취업률 70%, 영유아보육학과는 32명 중 29명 취업, 취업률 94%, 컴퓨터소프트웨어학과는 29명 중 11명 취업, 취업률 42.3%, 간호학과는 53명 중 42명 취업, 79.2%의 취업률을 보였다.

2024년 전망도 밝지는 않다. 2024년 12월 31일이 산정기준일인 『2024년 졸업자의 취업 통계』는 자체조사 결과 238명 졸업생 중 취업자는 131명으로 취업률은 62.7%로 추산하고 있다.

※ 취업률 산식

취업률=[건강보험DB 연계자+프리랜서+1인창업자+해외취업자]/(졸업자-진학자-입대자-외국인-취업불가능자)X100%

5개년도 학과별 취업률 현황

(기준:졸업년도)

학과	취업률				
	2023년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성서	33.3	43.3	52.5	54.8	40.0
사복	70.0	57.1	78.8	58.6	62.1
영보	94.0	83.7	95.2	95.3	97.6
컴소	42.3	95.2	71.9	61.5	73.7
간호	79.2	83.7	87.8	92.3	85.1
전체	67.4	72.2	78.2	74.0	71.6

2	0	2	4	년	도
	감	사	한		일
	아	홉		가	지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우리 삶에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은 일이 있겠는가! 학교로서도 2024년 한해가 은혜와 감사의 연속이었다. 코코스 편집진은 다음 9가지를 2024년에 우리 대학에 베푸신 하나님의 크신 축복의 사건으로 뽑아 시간대 별로 정리하였다.

대학기관평가 인증

한국대학평가는 우리 대학이 교육기관으로서 기본요건과 특성을 충족하고 있다고 인정. 유효 기간 2023년-2028년 (5년간). 일반재정지원사업 참여 자격 확보. [23년12월 27일]

신입생 충원율 100%

2024학년도 입시에서 신입생충원율 100% 달성. 지난 20년 동안 연속 100%. [2월 29일]

최정권 목사 제 8대 총장 취임

‘작고 아름답고 강한 대학’을 지향. “이 세상을 복음으로 섬겨 갈 복음전도자를 세상에 내보내는 일에 충성을 다하겠다” 취임사에서. [3월 1일]

포천 땅 50억에 매각

포천시 이동면 도평리 산 399번지 일대의 학교 땅 17만 3천 평을 (주)한국수자원에 매각, 토지보상액 50억 6월28일자 입금. 갈멜관 증축 기금으로 쓰일 예정. [3월 22일]

캠퍼스 전도 새 신자 66명

5월 전도집회 통해 41명, 9월 부흥성회 통해 6명 결신. 2학기 불신가족 전도 캠페인을 통하여 가족 19명 결신. 도합 66명 새 신자. [5월 22일]

대학혁신지원사업 평가 한 등급 상승

교육혁신성과 영역 B 등급, 자체관리 영역 B 등급 획득. 전년도 교육혁신성과 영역 C에서 한 등급 상승. 혁신사업비 23억 확정.

AI 융합학부 인가

‘AI융합학부’를 ‘제2의 성서학과’로 육성. 높은 영성과 바른 인성 그리고 AI능력을 갖춘 시대적‘복음전도자’를 내 보낸다는 자부심과 감사함이 넘친다. [4월 16일]

개인정보보호수준 진단

만년 하위였던 동 진단에서 올해 84.5점을 받아 ‘우수’등급으로 자리매김. 앞으로 ‘내려 갈 일은 절대로 없다’ 다짐. [9월 5일]

간호교육인증평가 ‘5년 인증’

한국간호교육평가원 주관 간호교육인증평가에서 ‘5년 인증’ 획득. 인증 기간은 2025년-2030년. 우리 간호학과는 2015년, 2020년, 2025년, 3회 연속 ‘5년 인증’을 받았다. [12월 16일]

2025학년도 정시 입시 경쟁률 2.65:1

신설 시용합학부
6.60:1로 가장 높아

2025학년도 정시모집은 72명 모집에 152명이 지원, 2.65:1의 경쟁률을 보였다. 2024년에는 2.51:1이다. 정원 내 학과별 경쟁은 올해 신설한 시용합학부가 6.60:1로 가장 높았으며 사회복지학과 4.83:1, 간호학과 3.81:1과 영유아보육학과 3.71:1, 성서학과 1.22:1로 나타났다.

편입학은 59명 모집에 102명이 지원, 1.73:1을 보였고 간호학과가 일반편입 13:1과 학사편입 10:1로 가장 높았다.

2025학년도 정시 및 편입 지원자 면접은 1월 23일 실시되며 최종 합격자 발표는 2월 7일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중앙성서교회 신임 이우근 목사

12월 8일 이·취임 감사 예배

“지역사회 복음화를 위한
사도행전적 교회” 다짐



취임을 하고 있는 이우근 담임목사

중앙성서교회 담임 목사 이·취임 감사 예배가 8일 오후 한국성서선교회 주관으로 진행되었다. 앞서 드린 예배에서 김정호(한국성서선교회 부회장, 삼일성서교회 담임) 목사가 ‘뜻대를 향해 달려가자’(빌3:12~14)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김 목사는 “사도바울의 고백처럼 뜻대의 최종 목적지는 십자가와 천국을 향한 전진이며 중앙성서교회가 말씀 전파 사역이 지속되는 복된 처소로 거듭날 것”을 강조하였다.

이우근 목사는 취임사에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고 목양의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겠다. 교회와 학교 설립자의 목회 철학을 잇고 올바른 그리스도인과 다음 세대를 적극 양육할 것이다. 중앙성서교회가 기도와 말씀, 전도와 선교의 본질에 충실한 사도행전적 교회를 지향하면서 지역사회가 복음화 되도록 온 성도들과 힘을 합쳐 이뤄내겠다”라고 밝혔다.

이임하는 현희철 목사는 “그동안 한결같은 사랑과 기도로 자신의 직분을 능히 감당해 주신 성도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취임하는 이우근 목사님을 통해 이 지역에 주님의 이름과 명성이 더욱 높아지고 부흥되는 축복을 기원”하였다.

강우정 법인 이사장은 “우리가 지향하는 뜻대는 무엇인가? 한반도의 복음화를 위한 복음전도 라는 점을 기억하고 중앙성서교회가 앞장서서 실천해 달라”고 강조하였다. 최정권 총장은 “목회의 최종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우근 목사가 주님의 영광만을 향해 최선을 다하는 목회자’가 되어달라고 축사하였다.

2024학년도 2학기 종강예배

강규성 목사
“주님이 오심을 간절히 소망하는 삶”

2학기 종강예배가 6일 로고스홀에서 진행되었다. 강규성 교목실장이 ‘속히 오리라’(계22:18~21) 제목의 말씀을 전했다.

“성경 말씀은 우리의 교과서다. 삶의 과정에서 선택할 모든 행위와 판단, 기준이 성서 중심으로 행하여져야 한다. 말씀에 따라 실천하고 주님이 오심을 간절히 소망하는 삶을 살 때 고난도 이겨낸다”며 우리 모두 굳건한 주의 제자가 되어 가자고 전했다.

최정권 총장은 권면에서 “「아버지의 요인」을 쓴 스티븐 폴더는 아버지의 영향력이 평생 이어지고 이를 극복하는 게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길”이라고 말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신다. 그의 사랑에 힘입어 육신의 아버지와 가족 그리고 주변의 모든 관계까지 행복이 가득 피어나길 소망하였다.

조효진 총학 부회장이 “배움에 힘쓴 학우들의 수고에 감사드리고 방학 동안 믿음 안에서 소망과 비전을 이뤄가기를 기도하였다.”

2024학년도 제 2차 교직원 연수

최정권 총장
“함께 한 방향으로 전진하자”



권면하고 있는 최정권 총장

2024년도 제2차 교직원 연수회가 16일 일립관 B101호에서 진행되었다.

최정권 총장은 권면을 통해 한 해 동안 자신의 직분을 잘 감당하며 수고한 교직원의 노고에 감사를 전했다. 성공적인 대학 총장의 요인으로 그는 후원금 모금을 들었다. “모금을 위해 자존심은 이미 내려놓았고 후원자에게 ‘우리 학교와 같은 대학이 없다. 이러한 대학을 도우면 하나님으로부터 당신이 축복받는다’” 라고 말한다. 이어 그는 “우리 모두가 함께 한 방향으로 전진하자”고 권면하였다.

강규성 혁신사업단장이 ‘2025년 정부 재정지원사업 추진방향과 우리 대학의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였다. 강 단장은 우리 대학에 미치게 될 3주기 대학 혁신사업의 흐름 및 서울시 RISE 기본계획과 예산에 따른 참여 가능 분야 등을 분석 점검하였다. 한동대 강영안 석좌 교수는 ‘스크루테이프로부터 배우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교육 철학’의 특강에서 치열한 영의 전쟁을 이겨낼 수 있는 신앙적인 관점과 교육 철학 등을 제시해 주었다.

정보보안 및 사례로 배우는 청탁금지법 안내와 교수 및 교직원 회의가 순차적으로 진행되었다.

(주) 제네시스 PE 2천만 원 후원

(주) 제네시스 PE(대표 이유재)가 학교 발전에 사용해 달라며 2천만 원을 후원하였다. 이 대표는 “예수님의 이웃 사랑을 실천해 갈 사회복지학과 학우들과 함께 복음전도자 양성에 매진하고 있는 대학의 발전을 위해 잘 사용되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주) 제네시스 PE사는 금융과 환경 및 에너지 관련 분야를 중심으로 사모투자 조합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미국 남가주사랑의교회 5천 달러 후원

미국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남가주사랑의교회(담임 노창수 목사)가 우리 대학에 5천 달러(720여만 원)를 후원해 주었다. 노창수 목사는 “성서대학은 어려운 현실에서도 오직 한 길, 복음전도자 양성의 명령을 굳건히 지키며 잘 실천해 왔다. 성도들과 함께 학우들의 영적 육적 양식을 제공할 수 있어 감사하다”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다. 교회는 1988년 설립되었고 다음 세대와 평신도를 깨우는 목회 철학을 실천해 오고 있다.

친정엄마 ‘손녀에게 특별한 백일 선물’

매월 10만 원씩 3년간 후원
학교에 고마움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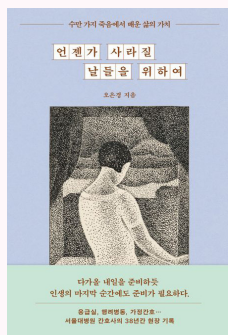
“한국성서대학교에서 배울 수 있게 된 것에 감사한다. 졸업하면 이 고마움을 갚기 위해 학교에 반드시 후원해야겠다”라던 이정원 동문(영보, 2009년 졸업). 그의 염원을 귀담아 들던 친정어머니가 이 동문이 낳은 딸의 백일에 맞춰 “내년 1월부터 학교에 10만 원씩 3년간 후원 하겠다”고 학교 대외협력팀에 알려 왔다.

이 동문의 친정엄마는 “오늘(26일)은 결혼한 딸이 낳은 손녀가 백일을 맞는 특별한 날이에요. 속정이 깊던 딸은 한국성서대 다닐 때부터 학교를 고마워했고 학교를 돕겠다는 말을 연신 해 왔어요. 딸이 낳은 딸이 백일 된 귀한 은혜에 감사하며 딸의 소중한 뜻을 조금이라도 이뤄주려고 합니다”라고 말했다.

대외협력팀 전영호 목사는 “현재 학교 재정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모교를 향한 후원의 온기가 성서공동체 안에서 계속 이어지기 바란다”고 소망하였다.

후원 문의 : 대외협력팀 02-950-5599 / 5517 / 010-5417-3651

신간 「언젠가 사라질 날들을 위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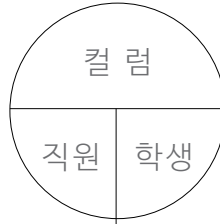
오은경 초빙교수가 서울대병원에서 38년간 간호사로 근무하며 수많은 생사 현장을 통해 깨달은 삶과 죽음에 대한 사유 「언젠가 사라질 날들을 위하여」를 출간하였다.

인간에게서 죽음은 피할 수 없는 필연적인 과정. 그러나 우리는 의식적으로 외면한다. 그러다 보니 숱한 생명이 무방비 상태에서 안타까운 죽음의 세계로 떠나고 만다. 오 교수는 임상 현장에서 접한 죽음이란? 곧 삶의 질 향상을 이뤄줄 핵심이요, 나아가 행복한 삶의 영위에 필수임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준비가 필요하며 준비된 죽음을 맞아야 한다.”라고 강조한다. 전자책도 출간되었다.

「언젠가 사라질 날들을 위하여」 오은경 / 흐름출판 / 19,000원



강지현 직원 (평가감사실)



드라마 : 우리의 일상 속 소소한 행복

우리는 바쁜 일상 속에서 종종 여유를 잃고 살아갑니다. 새로운 자극을 찾고, 더 나은 무언가를 갈망하며 앞만 보고 달리지만, 문득 멈춰 되돌아보면 진정으로 소중한 것들이 곁에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곤 합니다. 이 깨달음을 준 것 중 하나가 바로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이었습니다.

이 드라마는 의사 직업의 특수성을 다루면서도, 평범한 일상 이야기를 잔잔하게 풀어냅니다. 환자의 생사를 결정짓는 중대한 순간이 그려지기도 하지만, 친구들과 소소한 대화, 밴드 연습실에서의 농담, 가족과 짧은 통화 같은 작은 장면이 더 큰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결국, 삶을 이루는 건 거창한 사건이 아니라 일상에 스며있는 소소한 행복이라는 메시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드라마가 특별했던 이유는 저의 경험과 맞닿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학 시절, 팀 프로젝트 하며 갈등도 많았고, 모두 지켜있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감 후 새벽에 배달 음식을 먹으며 나누는 대화, 사소한 농담에 웃음이 터졌던 순간들은 지금도 따뜻하게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슬기로운 의사생활의 등장인물들이 밴드 연습 후 함께 야식 먹으며 나누는 웃음소리를 보면서 제 소소한 행복이 떠올라 마음이 찡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추억하고 그리워하는 순간들은 대단한 업적이나 화려한 이벤트가 아닙니다. 평범한 하루 속에서의 따뜻한 순간, 울고 웃었던 시간들이 행복으로 남게 됩니다. 드라마 속 대사가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살다 보면 가끔은 버겁고 힘들지만, 결국엔 괜찮아질 거야. 괜찮아질 때까지 우리, 잘 버텨보자.”, “괜찮아, 이런 일 꽤 있어. 그리고 다음에 이런 일 있으면 지금보다 잘하면 되지 뭐.” 이 대사는 저에게 커다란 위로와 용기를 주었습니다. 앞으로도 힘든 순간이 있겠지만, 그때마다 이 말을 떠올리며 제 주변의 소소한 행복을 잊지 않으려 합니다. 바쁜 하루 속에서 한 번쯤 멈춰 서서 주변을 둘러보세요. 혹시 모를 작은 행복이 곁에서 반짝이고 있을지 모릅니다.



김우원(컴퓨터소프트웨어학과4)

정의는 죽었는가?

우리는 어릴 때부터 “어려운 사람은 도와야 돼”라는 말을 흔히 듣고 자라왔다. 가족과 선생님, 주변 어른들은 늘 선행(善行)의 소중함을 강조했지만, 정작 어른이 되어 마주한 현실은 그리 간단하지 않다. 서로에게 무관심한 시대가 어떻게 이토록 당연하게 자리 잡았을까?

더 나아가 유명인들의 기부나 봉사는 종종 진정성보다는 이미지를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 비치기도 한다. 기부 금액이나 봉사 횟수가 화제가 될 때마다, 진정한 의미의 ‘돕는 마음’보다는 홍보 효과에 더 관심이 쏠리는 모습이 씁쓸하게 느껴진다. 막연하게 학교만 봐도 우리는 시험 점수 앞에서 경쟁이 우선이 되며, “내가 여유 있어야 남을 돕지”라는 식의 의식이 팽배해진다.

그렇다고 해서 누구도 서로를 외면하는 사회를 진정 바라는 것은 아닐 것이다. 양극화가 심해질수록 서로 간의 간극은 깊어지고, 자연스레 불신이 쌓여 ‘어려운 사람을 돕자’는 목소리마저 공허해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개인의 작은 행동 하나가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기반이 된다고 믿는다.

나는 봉사와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일상의 작은 행동만으로도 누군가에게는 큰 영감이 될 수 있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나는 우리가 그저 대중 심리에 이끌려 우르르 몰려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고 가치관을 세워 자신만의 목소리를 낼 줄 아는 사람들로 거듭나기를 바란다. 결코 거창한 영웅이 되라는 말은 아니다. 작은 실천을 이어가는 많은 이들의 움직임이 결국 사회를 변화시킬 것이고, 그 결과로 더 많은 사람이 공감과 연대의 가치를 되새기게 될 것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정의는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 곁에서 다시금 숨 쉬고 있음을 깨닫게 될 거라 믿는다.

반세호의

목양칼럼



반세호 목사
(성서대학교교회 담임)

성탄의 축복 ;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은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임한 날입니다. 죄로 인해 어두워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고자 하신다는 가장 큰 증거입니다. 성탄절은 바로 “임마누엘 ;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축복의 선언입니다.

2024년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후회와 아쉬움이 남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세운 계획이 어그러지고, 열심히 달려서 왔으나 결과가 부족하게 느껴질 때, 우리는 때로 낙심합니다. 그러나 성탄절이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시며, 우리의 내일을 열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아قام은 요셉의 두 아들에게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며 축복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창 48:15~16)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오늘 성탄절의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의 내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며,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이미 임했음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열어가실 2025년을 기대하십시오.

임경미의 토닥토닥 시 1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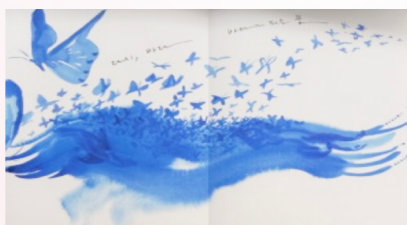
물이 되는 꿈 조윤석 (루시드폴)

물, 물이 되는 꿈, 물이 되는 꿈, 물이 되는 꿈
 꽃, 꽃이 되는 꿈, 씨가 되는 꿈, 풀이 되는 꿈
 강, 강이 되는 꿈, 빛이 되는 꿈, 소금이 되는 꿈
 바다, 바다가 되는 꿈, 파도가 되는 꿈, 물이 되는 꿈
 별, 별이 되는 꿈, 달이 되는 꿈, 새가 되는 꿈
 비, 비가 되는 꿈, 돌이 되는 꿈, 흙이 되는 꿈
 산, 산이 되는 꿈, 내가 되는 꿈, 바람이 되는 꿈
 다시 바다, 바다가 되는 꿈, 모래가 되는 꿈, 물이 되는 꿈
 물, 빗물이 되는 꿈, 냇물이 되는 꿈, 강물이 되는 꿈
 다시 바다, 바다가 되는 꿈, 하늘이 되는 꿈, 물이 되는 꿈

물이 꿈을 꾸다. 꽃이 되고 씨가 되고 풀이 되는, 강이 되고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바다가 되고 파도가 되고 물이 되는, 그 물은 하늘로 올라 별이 되고 달이 되고 새가 되고 비가 되는, 돌이 되고 흙이 되고 산이 되고 냇물이 되고 바람이 되고, 다시 바다가 되고 모래가 되고 물이 되고, 그 물은 빗물이 되고 냇물이 되고 강물이 되고 다시 바다가 되고 하늘이 되고 물이 되는 순환이 된다. 물의 꿈은 자유로이 흘러 자연의 순리가 되고 아름다운 순환이 되어 세상을 꿈꾸게 한다.

우리가 꾸는 꿈은 무엇일까? 자유로이 흘러 아름다운 순환이 될 수 있을까? 물이 냇물이 되고 강이 되고 바다가 되고 하늘로 올라 빗물이 되고 흙에 스며들어 꽃을 피워내듯 우리의 꿈도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 세상을 환하게 밝힐 수 있을까?

조윤석(루시드폴)의 아름다운 꿈의 노래는 이수지 작가의 그림을 만나 그림책 <물이 되는 꿈>으로 발간되었다. “노래를 듣는 그림, 그림을 보는 노래, 노래가 한 바퀴 돌아 다시 흐르는 파랑고 맑은” 그림책을 보며, 2025년 우리의 아름다운 꿈도 펼쳐내면 좋겠다.



<https://blog.naver.com/kongsangmi/222717496224>

아빠와 아들처럼

최정권

최정권의 온유한
GALLERY
52호



미국에서 아들이 왔습니다.
어디를 가면 좋을까?
생각을 해 보니
속초 바다가 생각났습니다.

아버지보다
아들이 온 것을 더 기뻐하는 엄마에게
아들과 해변을 걸으라 양보하고
매섭게 부는 바람 속에
펜을 잡고 얼어가는 손을 붙여가면서
밑그림을 그렸습니다

언제부터인가 그려지는 나무 중에
소나무를 갖고 싶었는데
굳이 소나무인 이유는 아마도
바람을 막고 선 적당한 허리둘레와
웅크린 채 겨울을 나는 솔잎의 생김새 때문일 겁니다.

내 생김새를 닮은 아들의 모양에서
자리를 지켜낸 소나무와
그 자리를 바라보는 또 다른 생김새의 소나무가
나란히 서 있습니다.

...

아빠와 아들처럼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한 작품의 타이틀



대학어린이집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우리 어린이집이 장애인먼저실천상 단체 부분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세계 장애인의 날'(12월3일)을 기념, 장애인식개선·사회통합·통합교육 등 '장애인먼저실천운동'을 모범적으로 실천한 기관을 선정하는 상이다. 장애가 틀림이 아닌 다름의 의미를 함축한 '다름 나름 가름 바람'의 타이틀과 개별화교육계획안(IEP) 및 통합 어린이집의 따뜻한 풍경을 영상으로 담았다. 앞으로도 대학어린이집은 장애유아 가족을 위한 다양한 지원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 보내길 기도한다. [믿음반 변송이 교사]

느린학습아동지원사업 안내 포스터



유치부(사회복지관)

경계선지능아동지원사업 선정

우리 복지관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 노원교육복지재단 주관의 '경계선지능아동지원사업'에 선정, 1,500만 원의 사업비로 인지 학습 강사에 의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됐다.

최근 사회 적응력과 인지 학습 능력이 낮아 학교 부적응 및 학습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느린 학습 아동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경계선 지능 아동은 법적 장애로 분류되지 않아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이기 쉽다. 노원구와 타 지자체들이 '경계선지능인평생교육지원센터'를 확대하는 중이어서 본 사업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토대를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유희주 사회복지사]

선타할아버지가 유아들에게 선물을 전하고 있다.



유치부(어린이집)

성탄축하행사

24일, '성탄축하행사'의 날에 각 교실과 어린이집 곳곳에 아기자기한 크리스마스 소품과 반짝이는 트리를 장식해 놓고 성탄절을 맞이하였다. 행사는 유아들이 모여서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기쁨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에 맞춰 산타가 아이들의 이름을 한 명씩 부르며 카드와 선물을 나눠주는 추억에 모두가 환호하는 감동적인 장면도 이어졌다. '성탄축하행사'가 성탄절에 담긴 본질을 잘 이해하였고 예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며 기쁨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됐다. [나리반 전보람 교사]

영·유아·유치부가 성탄주일에 찬양과 율동으로 감동을 전하였다.



성서대학어린이집

성탄 축하 예배

22일, 성탄 주일과 성탄절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기쁨을 온 성도와 찬양하며 예배로 영광을 올렸다.

먼저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찬양과 율동으로 감동을 전했다. 성탄절에는 초등부와 청소년부가 수어 찬양과 찬양곡, 워십으로 주님 오심의 감격을 선보이며 성도 모두에게 기쁨과 감사의 충만함을 안겨주었다.

반세호 목사는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임하신다'는 사실로 큰 위로와 도전을 주었고, 온 성도들은 주님 탄생의 기쁨을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 드렸다. [박효민 목사]

학부모에게 유아반 교육과정을 안내하고 있다.



상계백병원
점용병원

교육 설명회

11일, 2025년도 유아반 교육과정을 안내하는 설명회를 가졌다. 학부모들에게 놀이를 통해 교육적인 영향을 확인하고 실제 사례 공유 등을 설명하였다. 내년 교육과정과 특성화 프로그램 소개 및 교육 내용을 공감하도록 자료와 워크북 등으로 상세히 살펴 보았다.

학부모들은 “유치원 교육과 다르지 않아 안심이고 마음이 놓인다”며 만족감을 나타냈다. 설명회가 학부모님들과 신뢰 관계를 돈독히 하게 됐고,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발판을 다져주는 시간이 되었다.

[푸른반 강유나 교사]

강사가 보육교직원에게 제스모나이트 트레이 제작을 안내하고 있다.



노원구이동화점
노원구이동화점

제스모나이트 체험

13일, 노원구 내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나를 표현하는 제스모나이트 트레이 만들기’ 힐링 프로그램을 가졌다. 스트레스 해소와 안정, 삶의 활력 증진을 목적으로 친환경 재료인 제스모나이트를 활용, 개성 있는 트레이를 제작하는 시간이었다.

전문 강사의 지도로 제스모나이트를 다루면서 자신만의 창의적 활동을 통하여 심리적 안정과 심을 가졌다. 직접 만든 작품을 통해 성취감과 즐거움은 물론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었고 이러한 프로그램이 보육교직원에게 양질의 보육 서비스 창출로 이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

[송재경 보육전문요원]

보나 축제에서 율동을 선보이는 초록풀잎반 유아들



상계5동어린이집
어린이집

보나 크리스마스 축제

19일, ‘보나 크리스마스 축제’가 학부모와 친인척이 참여한 가운데 합창, 율동, 악기 연주 등의 무대로 펼쳐졌다. 만1세~5세반은 ‘징글벨’, ‘울면 안돼’ 등의 캐롤과 ‘딸기가 좋아’, ‘코끼리 아저씨’ 등 평소 선호하던 노래와 율동으로 인기를 끌었다. 만 5세반 형님들의 ‘I can flow the rules!’와 ‘We are a family’ 영어 노래 합창과 ‘Da doo Ron Ron’ 치어 리딩도 눈길을 사로잡았다. 아빠와 딸의 ‘Happy birthday to you’ 공연과 어린이집 교사들의 ‘Love song’을 통해 전체 원아와 학부모, 교사 모두가 화합하고 즐기는 특별한 축제가 되었다.

[초록풀잎반 장나혜 교사]

사랑나눔 겨울간식 행사가 진행중이다.



클림어린이집
어린이집

사랑 나눔 겨울 간식

17일, 신나는반이 주최한 ‘사랑 나눔 겨울 간식’ 행사가 진행되었다. 나눔을 실천하는 취지로 봉어빵, 어묵, 고구마 등 겨울 간식을 동생반 친구들에게 판매하는 모금도 진행하였다. 아이들은 직접 가게 운영뿐 아니라, 포스터 제작과 홍보활동까지 펼치며 나눔의 가치를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를 통해 마련된 수익금은 노원 사랑의 열매에서 주관한 ‘2025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에 전달하였다. 주변에 따뜻한 온기를 실천해 줄 이웃 사랑의 활동은 앞으로도 지속해 갈 계획이다. [신나는반 장아영 교사]

성폭력피해자들이 크리스마스 리스를 만들고 있다.



노원구이동화점
노원구이동화점

크리스마스 리스 만들기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아 성폭력피해자와 함께 크리스마스 리스 만들기를 하였다. 각자가 원하는 분위기와 취향, 개성을 살린 장식물을 만들고 개인별로 마음에 와닿는 응원 문구를 골라 폴라로이드 사진과 함께 리스에 다는 작업에 참여했다.

참여자들은 피해의식에서 벗어나 크리스마스를 통해 심리적 회복을 갖도록 안내하였고 참여자들은 친절한 강사, 충분한 시간 제공과 여유로운 재료 준비 등에서 매우 만족하였다. 2025년도에도 다양한 식물재료를 교육적 효과가 높은 원데이프로그램을 지속한다. [김수진 교사]

「성서대학동기운동」 기부현황

KBU와 함께 꿈꾸는 복음의 내일, 성서대학동기 운동이 복음을 심습니다

- 기부기간 / 2024년 11월 21일부터 2024년 12월 20일까지 신규약정 및 기부해 주신 분들의 명단입니다.
- 국내기부 / 국민은행 835-01-0178-931 예금주 한국성서대학교 / 하나은행 123-910004-14705 예금주 한국복음주의학원
- 국외기부 / Mail Check : Payable to Korean Bible Funds _ 646 Eliska Ct. Walnut Creek, CA 94598
- 접 수 처 / 01757 서울 노원구 동일로214길 32 _ 한국성서대학교 대외협력실(복음관1층) _ Tel. 02.950.5599, 5517 Fax. 070.4275.0161

100만원 이상 기부자 명단

(주)제네시스 PE	2000만원(운영, 장학, 사복)	안희원	120만원(운영)
홍풍중앙교회(정승대 목사)	1395만원(운영)	대한시스템 유한회사	100만원(장학)
무 명	1000만원(무명)	(주)중앙교육	100만원(운영)
강우정.강진(법인이사장)	960만원(운영)	이례장학	100만원(장학)
성서대학교회(반세호 목사)	933만원(운영)	홍설자(이사)	100만원(운영)
서문교회(이성화 목사)	120만원(운영, 장학)		

약정자 명단

동문 및 가족	재학생 및 가족	25구좌 이강동	2구좌 박기숙 박명숙 박수명
1구좌 강춘자 김순덕 김은식 김 진 김화석 서성식 이상필 이윤주 이채녀 임은진 조수빈 한혜우	5구좌 안중헌	어린양교회	단체 및 기관
2구좌 김영태 박재승 임주영	교직원 및 가족	3구좌 어린양교회	8,3구좌 (주)중앙교육
3구좌 이안나	1구좌 박주양 서광철	중앙성서교회	30구좌 (주)주안
5구좌 남영란 오진곤	2구좌 김남준 장길정	2구좌 신영옥	
10구좌 서수경 신치선	3구좌 추연진	5구좌 한금례	
	5구좌 박상민	일 반	
	10구좌 강규성 문무열 오은주	1구좌 박지성 유화실	

기부자 명단

동문 및 가족			
1만원 강나경 강순성 강신용 강애슬 강옥경 강은혜 강재현 강정민 강정희 강주옥 강춘자 고대운 고재민 광미화 구본길 구세경 구진경 권명순 권순길 권순웅 권술기 권유철 권정인 권희초 금동욱 김필규 김가영 김도훈 김동완 김두환 김명화 김명희 김무엘 김민정 김민음 김병렬 김선근 김선태 김성애 김세현 김수연 김수정 김순녀 김순덕 김순화 김승훈 김승희 김예진 김요셉 김유미 김유현 김은경 김은석 김은주 김은천 김은혜 김은혜 김응환 김일준 김재한 김정희 김진숙 김진영 김춘덕 김태용 김하은 김하나 김혜영 김화석 나선영 남궁화 남범수 남성휘 노정현 노하나 도 만 류요한 류하나 류희정 맹현진 문성령 문수란 문정혜 문홍철 민정은 박경수 박수진 박순임 박윤복 박재숙 박재신 박종주 박지영 박창대 박창민 박향식 박형택 박혜인 반해빈 반혜성 방지연 배은휘 배창경 배효순 백명희 백연옥 백연주 백혜송 변지윤 서성식 서유미 서지혜 서진희 서 현 서희영 송명배 송영화 송순옥 손진규 송바를 송순덕 송향숙 송현미 신경자 신미선 신연정 신영옥 신은혜 신지는 심두한 심인자 심희남 안현정 양은숙 양혜영 엄미자 오세천 오재명 용이름 우현아 원윤희 유미정 유수정 유영진 유주연 유주홍 윤영원 윤지준 윤현중 이광삼 이광석 이권호 이두현 이미정 이민우 이민화 이병주 이복희 이상용 이상준	이상필 이석호 이선정 이수진 이신애 이영식 이용원 이용철 이윤아 이윤주 이은광 이정숙 이정익 이정훈 이 진 이진경 이채녀 이철승 이학준 이혜렬 이해성 이현우 이현섭 이현지 이해란 이화연 이환기 인지혜 임남연 임상일 임은성 임은진 임은희 임찬웅 장동영 장문국 장익봉 장익심 장하나 전명수 전명자 전미영 전보람 전상호 전아름 전아영 전하나 정다연 정선소 정영교 정은희 정인철 정재연 정지현 정진영 정혜문 정희영 조민음 조소연 조수빈 조승희 조영희 조용희 조은경 조차현 주민자 주성현 주영덕 주진우 지영환 차나리 채유신 채종원 천난희 최규봉 최성경 최성자 최승주 최승진 최윤석 최인호 최중운 최진희 최현철 최혜림 탁국현 탁윤석 하수현 하 진 한경순 한상장 한혜우 허영숙 홍선호 홍성대 홍정심 설에스터 황보혜영 열매맺는교회	임은령 임은희 임주영 장유정 장은경 장재원 전영희 정복자 정성민 정영용 정옥순 정 완 조소정 조은별 최수지 최예본 최준준 최인경 최혜진 최효정 탁명화 하지혜 한민수 허춘선 홍진옥 홍혜주 황인숙 등대교회	2만원 장연정 전계화 지중배 강현중 관은혜 권영진 권윤주 김미옥 김선미 김선옥 김은희 김지영 김지혜 김창환 김형정 김형태 김효선 문혜진 박명규 백순옥 송동식 송세희 신동진 연성희 오명미 이미영 이승진 이승찬 이은영 장영순 장은정 전옥순 정인숙 조복임 조율이 지은영 최경애 최영숙 최장호 함은애
	1만5천원 2만원	3만원	3만원
		4만원	4만원
		5만원	5만원
		10만원	10만원
		5만원	교직원 및 가족
		1만원	1만원
		2만원	2만원
		11만원	11만원
		22만원	22만원
		100만원	100만원
		재학생 및 가족	재학생 및 가족
		1만원	1만원
		2만원	2만원
		3만원	3만원
		4만원	4만원
		5만원	5만원

기부자 명단			
<p>김원빈 김현동 신지수 양단아 유미나 이상일 장성희 장정순 6만원 권순범 7만원 임환석 10만원 강정원 고미숙 김성경 김소희 김정숙 김주아 김태규 김현광 김현욱 김형미 문우열 배진형 신금주 안창선 안현미 오은주 원영희 이상아 이소정 이슬기 장인순 조현진 조혜경 최사랑 최영태 최옥열 최은희 홍소윤 김정원(신) 김정원(영) 11만원 최지은 12만원 김덕현 김웅기 13만원 김중환 한진호 15만원 강규성 권경만 김은호 김희수 안정선 이한영 20만원 김승욱 김창원 박 선 박태수 정취진 25만원 이강동 임지영 35만원 최선희 100만원 홍철자 960만원 강우경 강 진 1000만원 무 명 2000만원 (주)제네시스 PE</p> <p>부설기관 1만원 김은지 김지은 김하예 김효진 이유리 이은정 임재택 호한나 2만원 진양희 허성보 3만원 권효진 문유나 박춘순 변승이 안미희 유정현 5만원 박연희 신영자 이인경 이지연 차도영 7만원 김선화 10만원 권정아 박빛나 장수진 조지선 15만원 김화영 지주나 20만원 김신덕 35만원 오동준 40만원 차 건</p> <p>권선제일교회 1만원 이상규 5만원 권선제일교회</p> <p>동광교회 1만원 김복례 한미희 배 윤.김현진</p> <p>밀알교회 1만원 서효정</p> <p>삼일성서교회 1만원 김초롱 오성군 정혜란 함금순</p> <p>서문교회 1만원 강선에 박경자 윤인호 1만5천원 정찬수 120만원 서문교회</p>	<p>성서대학교교회 9천원 박진석 오경모 정갑순 황성모 1만원 강경혜 오경원 이기은 이대영 이대한 이정철 이지수 이진호 1만8천원 고경숙 고나경 고미숙 광규상 권은정 김덕현 김동석 김문정 김배열 김사천 김상은 김성은 김성진B 김성진C 김성철 김애숙 김은미 김인영 김일선A 김일선B 김지윤 김진철 김현미 김혜련 김희현 무 명 박상희 박영숙 박영신 박은선 박인숙 박주형 서영우 서 훈 석경순 송형기 안봉숙 오정자 윤도진 윤재필 이경미 이관영 이무현 이봉호 이소정 이영진 이정숙 이정자 이종욱 장근문 장기영 장진희 정홍림 정나영 정성희 조영희 조정선 최영태 최인숙 하은희 허진순 황시은 3만6천원 강유진 김민자 김인자 김희자 박 선 박선하 반해빈 반해성 유종업 이경신 이주현 최용석 한성실 황서린 4만5천원 박은경 유형창 5만4천원 김유미 김현석 반세호 송재철 이숙영 최선희 6만3천원 박태수 9만원 강성훈 권경만 권태완 김용희 김경일 김미진 김희진 박세건 박은유 이은실 이정임 전명진 전옥순 최강희 최대만 한진호 18만원 김원태 이병선 933만원 성서대학교교회</p> <p>성서선교회 1만원 윤무표 2만원 금촌성서교회 3만원 푸른동산교회 5만원 동두천성서성김교회 월계성서교회 10만원 다빛교회 삼일성서교회</p> <p>세빛교회 5만원 세빛교회</p> <p>수원교회 1만원 강동형 김일섭 홍성호</p> <p>어린이양교회 1만원 김정희 2만원 한지화 3만원 임윤창 어린이양교회 7만원 이정선</p> <p>일동성서교회 1만원 심미영 유현석 2만원 김의남 박문수</p>	<p>3만원 왕순희 5만원 표길홍</p> <p>장자교회 4만원 권정숙 5만원 장자교회</p> <p>주향교회 1만원 유병우 2만원 정우진 3만원 주향교회</p> <p>중앙성서교회 1만원 김세현 김정희 이승학 이태학 최영란 2만원 강영애.신한성 신영옥 이준구.안춘자 3만원 권순호 김덕규 오근수 5만원 김옥자 이경식 한금례 중앙성서교회 원로·은퇴장로회 10만원 김용철 김윤규 송인숙 현희철 중앙성서교회 바울선교회 12만원 황인도.김순자 15만원 이혜선 48만원 중앙성서교회 구제위원회</p> <p>퇴계원제일교회 1만원 유재란 10만원 퇴계원제일교회</p> <p>평화교회 1만원 안종민 안지선</p> <p>중앙교회 1만원 윤은정</p> <p>함평대동교회 1만원 김희경</p> <p>화도드림교회 1만원 권순실 5만원 화도드림교회</p> <p>호성교회 1만원 진경숙 진효숙</p> <p>일 반 1만원 구필레 권숙영 권창석 김기수 김동우 김명호 김미라 김법설 김양권 김유벽 김은경 김인호 김천수 노은경 문혜영 박미숙 박영미 박영희 박지성 박해숙 송수용 안애숙 오미라 오미선 오지혜 오현숙 유금례 유해연 유화실 이관현 이우윤 이원주 이유진 이현수 임숙자 조동빈 조목장 조연상 조여원 조은혜 진윤승 최경숙 최범식 최서영 최은실 황영수 2만원 강명옥 권소영 김미금 김옥석 김동석 김성래 김윤숙 박재균 서병준 서성원 안은숙 이일신 이태일 정주아 정형채 조혜령 최국영 최지연 홍춘호</p>	<p>행복한교회 3만원 장문석 3만5천원 박은영 4만원 허정안 5만원 석지현 이천하 주은자 10만원 서미혜 20만원 류동원 박경혜 30만원 박순정 120만원 안희원</p> <p>단체 및 기관 1만원 김포예수사랑교회 /늘푸른교회/맑기즈푸드 /목양교회/무신터내셔널 /주님소교회/행복한교회 2만원 (주)삼산전기관리공사 /주)에이스와식산업 /도새기평/동신자원 /바르고복된교회/열방교회 3만원 꿈꾸는교회/우리교회 /의정부좋은나루교회 /주식회사 이수전기 4만원 플랜팅스즈 5만원 다드림교회/미사목민교회 /본도시락 중계점 /사랑샘교회/상일교회 /예일에드컬/천성교회 /한일성서교회/행진교회 10만원 (주)바다나라 /주)이레E&C이레디자인 /가성교회/구리성광교회 /구리중앙교회/도봉성산교회 /두암산업(주)/만나교회 /상록교회/성북중앙교회 /소망교회/전주서부중앙교회 /철원제일교회/청평교회 /평안교회(신병수) 30만원 (주)주안/한민제일교회 40만원 도서출판현문사 50만원 동서환경(주) 76만4천원 총학생회 100만원 (주)중앙교육 대한시스템 유한회사 1395만원 홍콩중앙교회</p> <p>소계(20241121~20241220) 99,029,284 누계(20240301~20241220) 787,199,790</p>

한국성서대학교 12월 『발전후원금』					
일반(일시불) 후원자 (42,979,416원)					
제네시스 PE(이유재)	20,000,000원	홍콩중앙교회 (정승대 목사)	13,952,026원	김성경(교직원)	5,000,000원
김미경 (일반)	1,000,000원	반종원(동문)	1,000,000원	하이플랜(동문)	1,000,000원
표길홍(동문)	287,390원	남현수(동문)	250,000원	선경안(동문)	250,000원
배민정(교직원)	100,000원	인성은(재학생)	70,000원	황미숙(재학생)	60,000원
성광재(동문)	10,000원				
약정 후원자 (합계 57구좌, 연간 납입예정액 6,840,000원)					
50구좌	강우정 (법인 이사장)	/	5구좌	황미숙 (재학생)	/
1구좌			1구좌	김종환(동문), 김성민(일반)	
일시납 누계(3.1~12.22) 273,355,477원			약정자 누계 (3.1~12.22) 238구좌 28,560,000원		

2024년도 기부현황

지난 한 해동안 한국성서대학교 후원에 동참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024년 1월 ~ 12월까지 기부자 명단

성명	기부액	성명	기부액	성명	기부액	성명	기부액	성명	기부액
동문 및 가족		김성균	30,000	남희경	600,000	서성식	110,000	유미정	120,000
가학교회	550,000	김성애	50,000	노명민	80,000	서수경	1,200,000	유선미	1,320,000
강경옥	600,000	김성훈	240,000	노민지	240,000	서유미	120,000	유소담	50,000
강나경	120,000	김세련	270,000	노정현	20,000	서웅	30,000	유수정	120,000
강상미	100,000	김세현	120,000	노한나	120,000	서지혜	120,000	유아람	560,000
강순성	120,000	김소영	70,000	노만	120,000	서진희	20,000	유양숙	600,000
강신용	90,000	김수아	20,000	등대학교회	200,000	서현	110,000	유영진	120,000
강애솔	120,000	김수연	120,000	류요한	120,000	서희영	120,000	유의숙	240,000
강옥경	120,000	김수정	120,000	류종주	100,000	선경안	250,000	유주연	120,000
강은해	120,000	김순녀	120,000	류종열	240,000	설보경	360,000	유주홍	120,000
강재현	50,000	김순덕	120,000	류한나	120,000	설에스더	120,000	윤광길	240,000
강정민	120,000	김순화	120,000	류희정	120,000	성광재	10,000	윤기성	200,000
강정희	110,000	김술기	10,000	리스템미니스트리	4,000,000	성낙표	2,440,000	윤문순	360,000
강주옥	120,000	김승훈	120,000	마호정	20,000	성서밀알선교회	2,600,000	윤서희	60,000
강춘자	120,000	김승희	120,000	맹현진	100,000	성성은	20,000	윤영원	120,000
강해든이	110,000	김시내	5,000	문기철	30,000	성용제	60,000	윤정숙	100,000
고난홍	120,000	김연정	240,000	문성령	120,000	성인선	360,000	윤지준	120,000
고대운	120,000	김영래	240,000	문수란	60,000	소경숙	240,000	윤현중	120,000
고성호	220,000	김영태	240,000	문정혜	120,000	손명배	120,000	이광삼	120,000
고은영	360,000	김예겸	60,000	문홍철	120,000	손승현	300,000	이광석	100,000
고재민	100,000	김예진	120,000	민다희	10,000	손영화	120,000	이권호	80,000
공복순	270,000	김요셉	120,000	민승철	360,000	손윤숙	90,000	이근중	70,000
곽미화	120,000	김용길	240,000	민정은	20,000	손진규	120,000	이기주	240,000
곽지윤	180,000	김원미	240,000	민찬양	120,000	송만호	180,000	이기훈	450,000
구본길	110,000	김유경	180,000	박강한	500,000	송민규	70,000	이길순	360,000
구본주	80,000	김유미	120,000	박경수	120,000	송바울	60,000	이나연	200,000
구세경	120,000	김유빈	40,000	박경옥	30,000	송복순	600,000	이남희	60,000
구연민	240,000	김유현	120,000	박광필	600,000	송성은	10,000	이다윤	360,000
구예은	60,000	김윤정	360,000	박기혁	360,000	송순덕	110,000	이도훈	30,000
구진경	120,000	김은경	110,000	박문웅	270,000	송인성	240,000	이두현	120,000
국소영	240,000	김은석	120,000	박문홍	120,000	송향숙	120,000	이레장학	12,000,000
권명순	120,000	김은선	120,000	박민주	60,000	송현미	120,000	이마리	240,000
권민지	200,000	김은숙	50,000	박상수	200,000	송경자	120,000	이미정	120,000
권서영	360,000	김은주	120,000	박성주	160,000	신대민	60,000	이민우	120,000
권순길	120,000	김은천	120,000	박세은	100,000	신미선	120,000	이민화	120,000
권순웅	120,000	김은하	240,000	박수진	120,000	신상춘	600,000	이병모	100,000
권슬기	120,000	김은혜	110,000	박수현	10,000	신연정	120,000	이병주	120,000
권오규	360,000	김은혜	100,000	박순임	120,000	신영옥	220,000	이병철	600,000
권유철	120,000	김용환	120,000	박아롬	80,000	신윤심	500,000	이복희	120,000
권은지	330,000	김인화	540,000	박윤복	120,000	신은진	480,000	이부호	600,000
권정인	120,000	김일준	120,000	박인순	500,000	신은혜	120,000	이상용	240,000
권준	10,000	김창교	1,200,000	박재수	240,000	신정섭	240,000	이상용	120,000
권지연	80,000	김재원	240,000	박재숙	100,000	신지은	120,000	이상준	90,000
권희조	120,000	김재일	360,000	박재신	120,000	신치선	1,200,000	이상진	110,000
금동옥	120,000	김재한	120,000	박정연	40,000	신태양	10,000	이상필	120,000
금필규	120,000	김재현	110,000	박종주	120,000	신혜영	60,000	이석호	120,000
길득희	200,000	김정복	240,000	박주영	240,000	신화영	240,000	이선영	220,000
김가람	140,000	김정희	120,000	박주은	480,000	심규리	80,000	이선정	20,000
김가영	120,000	김종숙	1,200,000	박지은	110,000	심두한	120,000	이성은	330,000
김규리	200,000	김종환	10,000	박창대	120,000	심인자	120,000	이수경	100,000
김기숙	600,000	김준오	600,000	박창민	120,000	심희남	120,000	이수진	110,000
김도훈	120,000	김중재	160,000	박향식	120,000	안선례	220,000	이신재	120,000
김동관	900,000	김지선	40,000	박형택	120,000	안현정	120,000	이아람	10,000
김동완	270,000	김지애	180,000	박혜숙	220,000	양연선	330,000	이아름	20,000
김동원	240,000	김지원	240,000	박혜인	120,000	양연주	600,000	이안나	360,000
김두영	100,000	김진	560,000	반세호	330,000	양은숙	110,000	이영광	30,000
김두환	100,000	김진경	600,000	반해빈	120,000	양주향	30,000	이영림	100,000
김명화	120,000	김진만	1,200,000	반해성	120,000	양혜영	120,000	이영식	120,000
김명희	120,000	김진숙	110,000	방지연	120,000	염미자	120,000	이영애	240,000
김무엘	120,000	김진영	120,000	배은휘	120,000	염보라	10,000	이예람	135,000
김미나	200,000	김춘덕	120,000	배정환	480,000	염보영	110,000	이예원	20,000
김미소	5,000	김태용	120,000	배창영	120,000	연현숙	100,000	이영원	120,000
김미향	220,000	김하은	120,000	배효순	100,000	열매맺는교회	120,000	이용철	120,000
김민경	60,000	김한나	120,000	백명희	120,000	오상석	20,000	이우진	180,000
김민정	120,000	김현정	90,000	백연옥	120,000	오세천	70,000	이유나	600,000
김민지	100,000	김현진	120,000	백연주	120,000	오찬미	10,000	이유미	240,000
김민을	120,000	김혜영	80,000	백해송	120,000	오채엽	120,000	이유진	160,000
김병렬	120,000	김화석	120,000	백향목	100,000	오현주	180,000	이윤성	360,000
김복녀	240,000	나선영	120,000	변지윤	120,000	오공현	182,400	이윤아	120,000
김셋별	10,000	나유나	10,000	생명의빛교회	500,000	용아름	120,000	이윤주	120,000
김석관	60,000	남궁화	20,000	서광진	1,200,000	우종엽	300,000	이은광	220,000
김선근	120,000	남범수	120,000	서규원	30,000	우현아	120,000	이은애	240,000
김선옥	1,200,000	남성취	120,000	서명주	600,000	원윤희	100,000	이의선	240,000
김선태	50,000	남영란	600,000	서성숙	360,000	유미영	200,000	이재은	240,000

2024년 1월 ~ 12월까지 기부자 명단

성명	기부액	성명	기부액	성명	기부액	성명	기부액	성명	기부액
이정근	450,000	정재연	120,000	황보혜영	120,000	이미영	240,000	김세미	120,000
이정복	60,000	정지현	100,000	황승호	110,000	이선경	160,000	김세원	240,000
이정숙	120,000	정진영	120,000	황영숙	360,000	이성란	100,000	김재원	120,000
이정원	100,000	정혜문	110,000	황예린	80,000	이성령	60,000	김소희	1,200,000
이정익	120,000	정희영	110,000	황인숙	240,000	이승민	40,000	김승욱	2,400,000
이정훈	120,000	조민음	110,000	황형록	80,000	이승진	200,000	김승호	800,000
이종근	20,000	조서윤	60,000	재학생 및 가족	이승찬	240,000	김애란	120,000	
이종임	240,000	조소연	120,000		이연신	120,000	김웅기	720,000	
이주연	360,000	조소정	240,000		이유진	15,000	김원빈	600,000	
이지은	600,000	조수빙	120,000		이윤서	60,000	김유진	120,000	
이진	90,000	조승희	120,000		이은수	10,000	김은호	1,800,000	
이진경	120,000	조신애	30,000		이은영	240,000	김정호	240,000	
이진리	70,000	조영희	120,000		이재현	600,000	김정숙	1,200,000	
이채녀	120,000	조윤희	120,000		이정민	10,000	김정원(신)	1,200,000	
이철승	120,000	조유민	110,000		이진아	20,000	김정원(영)	1,200,000	
이충희	240,000	조은경	120,000		이향기	5,000	김종현	110,000	
이학준	100,000	조은경	180,000		이혜봉	140,000	김주아	1,200,000	
이한별	100,000	조은별	240,000		이혜윤	20,000	김중완	1,565,000	
이해별	120,000	조차현	120,000		이혜정	120,000	김지환	120,000	
이해성	110,000	조하은	30,000		임동화	120,000	김지호	110,000	
이현무	90,000	좋은교회	330,000		임종우	60,000	김창원	2,400,000	
이현섭	120,000	주민자	120,000		임지영	100,000	김창현	360,000	
이현우	240,000	주성현	110,000		장숙향	50,000	김춘하	120,000	
이현지	120,000	주영덕	120,000		김소미	10,000	김태규	1,200,000	
이현지	360,000	주진우	120,000		김승례	1,200,000	김현광	1,200,000	
이해란	20,000	지다은	140,000		김애선	80,000	김현동	605,000	
이혜영	20,000	지영환	120,000		김양순	30,000	김현욱	1,200,000	
이호우	688,330	차나리	70,000		김은미	40,000	김형미	1,200,000	
이화연	120,000	차주엽	210,000		김은주	80,000	김형중	120,000	
이환기	120,000	채유신	120,000		김은채	10,000	김희	2,500	
이희숙	200,000	채종원	120,000	김은혜	65,000	김희수	1,800,000		
인성은	140,000	천난희	20,000	김은희	200,000	류은미	120,000		
인지혜	120,000	최가현	160,000	김주은	20,000	문무열	1,200,000		
임남연	110,000	최경환	600,000	김지영	160,000	문지혜	225,000		
임삼일	120,000	최규봉	120,000	김지혜	200,000	민경은	245,000		
임수경	220,000	최문정	300,000	김창환	220,000	박남일	120,000		
임수정	180,000	최서희	110,000	김현정	200,000	박덕자	120,000		
임연식	360,000	최선경	120,000	김형태	240,000	박명우	120,000		
임유림	30,000	최선경	90,000	김혜미	60,000	박묘서	120,000		
임은령	140,000	최선옥	220,000	김호경	20,000	박상민	50,000		
임은성	120,000	최성자	120,000	김호선	180,000	박선	2,400,000		
임은진	110,000	최소리	360,000	나예린	90,000	박성환	1,000,000		
임은희	240,000	최송희	600,000	남현수	250,000	박연희	120,000		
임은희	20,000	최수지	240,000	류가환	10,000	박은주	240,000		
임주영	240,000	최승주	120,000	마다현	10,000	박인혁	2,500		
임준택	20,000	최승진	120,000	문채진	20,000	박주양	120,000		
임찬웅	120,000	최양서	300,000	박명규	240,000	박태수	2,400,000		
장동영	10,000	최예분	40,000	박미영	270,000	박태웅	700,000		
장영훈	360,000	최윤석	110,000	박보병	360,000	반우형	125,000		
장유정	200,000	최윤준	100,000	박서연	15,000	반종원	2,200,000		
장윤국	120,000	최인경	240,000	박선희	450,000	방진희	360,000		
장은경	240,000	최인호	100,000	박윤경	60,000	배민정	445,000		
장익봉	120,000	최중운	120,000	박은영	120,000	배진형	1,200,000		
장익심	120,000	최진희	120,000	박은정	600,000	서광철	120,000		
장재원	240,000	최현정	120,000	박지홍	2,400,000	송희경	10,864,300		
장희남	70,000	최혜림	110,000	박한을	30,000	신금주	1,205,000		
전명수	120,000	최혜진	200,000	박혜신	60,000	신재윤	365,000		
전명자	120,000	최호정	180,000	박효림	15,000	신지수	715,000		
전미영	120,000	추유나	50,000	배정숙	360,000	강정원	1,800,000		
전보람	120,000	추하은	140,000	백순옥	140,000	고미숙	1,200,000		
전상호	120,000	탁국현	120,000	선유정	20,000	고진주	240,000		
전아름	120,000	탁명화	240,000	손미연	500,000	곽규상	600,000		
전아영	120,000	탁윤석	130,000	송동식	240,000	곽한나	120,000		
전영희	240,000	탁현정	360,000	송명애	500,000	구광면	600,000		
전지혜	360,000	태지선	210,000	송세희	160,000	구자람	80,000		
전한나	120,000	하수현	120,000	송의택	330,000	권경만	1,655,000		
정나나	456,000	하지혜	240,000	송지민	30,000	권관희	120,000		
정나영	20,000	하진	120,000	신동숙	200,000	권민주	240,000		
정다연	120,000	하진우	70,000	안민호	20,000	권서후	240,000		
정다운	10,000	한경순	120,000	안성민	10,000	권순범	725,000		
정동주	720,000	한민수	60,000	안종현	600,000	권오섭	360,000		
정복자	240,000	한상장	120,000	안태우	30,000	김남준	240,000		
정선도	120,000	한솔	80,000	양은성	120,000	김덕원	285,000		
정성민	240,000	한혜우	120,000	연성희	240,000	김덕현	1,325,000		
정소은	20,000	함평대동교회	600,000	오명희	240,000	김도경	800,000		
정슬기	360,000	허영숙	120,000	유하은	10,000	김미숙	550,000		
정영교	120,000	허춘선	240,000	윤성준	15,000	김미영	120,000		
정영웅	240,000	홍금주	20,000	윤예원	20,000	김병수	605,000		
정옥순	240,000	홍선호	120,000	이경민	200,000	김봉재	105,000		
정완	240,000	홍성대	120,000	이다원	10,000	김상일	120,000		
정윤미	20,000	홍정심	120,000	이동기	120,000	김선준	120,000		
정은희	120,000	홍진옥	240,000	이동수	20,000	김성경	6,200,000		
정인철	120,000	홍혜주	240,000	이미숙	100,000	김성호	600,000		
								김세원	240,000
								김재원	120,000
								김소희	1,200,000
								김승욱	2,400,000
								김승호	800,000
								김애란	120,000
								김웅기	720,000
								김원빈	600,000
								김유진	120,000
								김은호	1,800,000
								김정호	240,000
								김정숙	1,200,000
								김정원(신)	1,200,000
								김정원(영)	1,200,000
								김종현	110,000
								김주아	1,200,000
								김중완	1,565,000
								김지환	120,000
								김지호	110,000
								김창원	2,400,000
								김창현	360,000
								김춘하	120,000
								김태규	1,200,000
								김현광	1,200,000
								김현동	605,000
								김현욱	1,200,000
								김형미	1,200,000
								김형중	120,000
								김희	2,500
								김희수	1,800,000
								류은미	120,000
								문무열	1,200,000
								문지혜	225,000
								민경은	245,000
								박남일	120,000
								박덕자	120,000
								박명우	120,000
								박묘서	120,000
								박상민	50,000
								박선	2,400,000
								박성환	1,000,000
								박연희	120,000
								박은주	240,000
								박인혁	2,500
								박주양	120,000
								박태수	2,400,000
								박태웅	700,000
								반우형	125,000
								반종원	2,200,000
								방진희	360,000
								배민정	445,000
								배진형	1,200,000
								서광철	120,000
								송희경	10,864,300
								신금주	1,205,000
								신재윤	365,000
								신지수	715,000
								강정원	1,800,000
								고미숙	1,200,000
								고진주	240,000
								곽규상	600,000
								곽한나	120,000
								구광면	600,000
								구자람	80,000
								권경만	1,655,000
								권관희	120,000
								권민주	240,000
								권서후	240,000
								권순범	725,000
								권오섭	360,000
								김남준	240,000
								김덕원	285,000
								김덕현	1,325,000
								김도경	800,000
								김미숙	550,000
								김미영	120,000
								김병수	605,000
								김봉재	105,000
								김상일	120,000
								김선준	120,000
								김성경	6,200,000
								김성호	600,000
								김세원	240,000
								김재원	120,000
								김소희	1,200,000
								김승욱	2,4

